

이슬람 극단주의와 강한 부족 전통의 통합작용이 아프가니스탄의 민족국가 건설의 혼란과 안보의 위기로서의 테러리즘과 마약 거래에 미친 영향

윤민우*, 김종화**

이 논문은 2001년 탈레반 정권 붕괴 이후 아프가니스탄에서 계속되는 안정된 민족국가 건설의 어려움과 이와 관련된 이 지역 안보의 위기의 징후로서의 테러리즘과 마약 거래의 대두와 지속이라는 문제에 대해 설명하려고 시도한다. 이 논문은 오늘날 보여 지는 아프가니스탄의 국가건설과 안보 위기와 관련된 도전들이 이 지역의 민족국가의 취약성과 민족과 근대적 민족주의의 미 정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라는 민족국가 단위의 위로부터 당기는 힘과 강력하게 남아있는 부족 전통이라는 아래로부터 당기는 힘이 함께 작용함으로써 민족과 민족주의가 형성되는 것을 막고 민족국가의 건설을 방해함으로써 이 민족국가의 힘과 작용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약화된 카르자이의 민족국가는 폭력을 독점하지도 못하고 법 집행능력도 효과적으로 갖추지 못함으로써 권위와 정통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중앙의 민족국가의 장애는 부족 전통이 강한 지역 수준에서 테러리즘과 마약 거래가 번성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곧 탈레반 등의 테러집단과 마약 거래 집단 등의 비국가 폭력 행위자들의 세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서 아프간 도처의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상시적으로 위협받는 안보의 위기를 초래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 수준에서의 안보의 위기는 다시 중앙의 민족국가 건설의 강력한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이 글은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에서 보여 지는 민족국가 건설의 어려움과 테러리즘과 마약거래 같은 안보의 위협은 평면적인 이해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보다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민족과 민족주의 그리고 민족국가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주제어: 아프가니스탄, 안보, 이슬람 극단주의, 부족, 민족국가, 테러리즘, 마약거래

I. 머리말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에서 보여 지는 정치위기와 사회혼란 그리고 테러와 마약거래로 인한 치안악화

* 제1저자, 교신저자 ** 공동저자

등의 위기 상황은 실존하는 문제로 보여 진다. 이 지역에서는 이미 거의 10년째 내전이 계속되며 근대적 의미에서의 민족국가 건설은 아직도 힘들어 보인다. 이런 아프간에서의 민족국가 건설을 둘러싼 혼란과 테러리즘과 마약 거래 등의 악화와 이와 맞물린 치안부재 상황이 빚어내는 안보의 위기는 아프간 사회에 심각한 위협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다시 이러한 안보의 위기는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민족국가건설에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Shultz & Dew, 2006).

이 논문은 이처럼 복잡하게 인과관계가 맞물리면서 증폭되는 오늘날의 아프간 지역에서 보여 지는 민족국가 건설과정의 혼란과 장애 그리고 이와 맞물린 안보의 위기에 대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북아메리카와 유럽, 그리고 러시아나 한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같은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보여 지는 안정되고 견고하게 작동하는 민족국가는 아프가니스탄 지역에서는 왜 쉽게 만들어지지 못하며 그러한 걸림돌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또한 이러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민족국가의 부재는 오늘날 아프간 사회에서 치안의 부재가 초래하는 안보의 위기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이 글은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을 구하고자 한다.

물론 민족국가 건설의 어려움과 안보의 위기는 여러 원인들에 의해 설명될지도 모른다. 대체로 사회과학이 다루는 대상은 여러 복잡하게 얽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결과물로 도출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그 원인에 대한 설명 역시 이러한 요인들을 다 들여다보면서 복잡하게 전개되어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아프가니스탄의 내적 동인에 그 초점을 맞추고 그 외의 원인 또는 요인들은 상수로 처리하여 의도적으로 논의 대상에서 배제한다. 이는 어떤 연구도 모든 원인들을 다포함해서 다룰 수 없다는 한계 때문이며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아프간 지역 내의 내적 동인에 보다 초점을 두어 이의 중요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글의 의도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아프간의 국가 건설의 어려움과 안보 위기가 미국 등 외세의 개입으로 인한 위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는 한국과 같은 강력한 외세에 둘러싸인 다른 지역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강력한 민족국가가 성립되어 작동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더욱이 아프가니스탄이 역사적으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근대적 민족국가를 수립한 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을 인지하면 더욱 그러하다. 일반적으로 외세의 영향력은 해당 지역 또는 국가의 내적 동인과 상호작용하면서 그 영향력을 보다 더 또는 덜하게 작용될 것이다. 때문에 이 글에서는 외세의 영향력은 상수로 놓고 아프간의 내적 동인을 변수로 하여 이를 보다 자세하게 들여다볼 것이다.

민족국가가 유럽의 발명품이란 것은 의심할 것 없는 사실이다(Mayall, 1990: 35-49). 하지만 미국과 같은 비 유럽 국가들 역시 안정된 민족과 민족국가를 만들어 냈다. 심지어 중동지역에 위치하며 그 역사도 짧은 이스라엘 역시 안정된 민족 국가의 건설에 성공하였으며 한국과 일본과 같은 북동아시아 국가들 역시 안정된 민족과 민족국가 건설에 대체로 성공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물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왜 잘 도출되지 않는가? 이 글은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의 국가건설에서의 어려움과 그에 맞물린 안보위기의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찾아보고자 한다.

이 글은 아프간 지역에서 견고하고 안정되게 작동하는 민족국가가 건설되지 못한 이유를 아마도 근대적 의미의 민족과 민족주의가 이 지역에서 제대로 구성되지 못한데서 찾아야한다고 가정한다. 그것이 프랑스식의 시민적 민족주의 이견(Renan, 2002) 아니면 독일식의 언어적, 문화적 민족주의 이견(Herder, 2002) 민족국가는 민족의 형성과 종교로서의 민족주의의 정착을 전제로 한다. 민족주의라는 유사종교가 지배적인 정신으로서 구성원들을 통합하고 그 구성원들의 충성심과 복종을 이끌어내는 작업이 민족국가 건설 이전에 진행되어야 한다(Hobsbawm, 1992). 이러한 작업을 통해서 민족주의는 가족과 지방, 그리고 부족(tribe)과 혈족(clan), 신분과 계급 등으로 나뉜진 개인들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해체하고 이들을 새로운 민족이라는 개념적 허구의 공동체인 Gesellschaft 안으로 하나로 묶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궁극적으로 민족과 민족주의의 정착이 없이 진행된 민족국가의 건설은 그 국가 제도 자체가 국가의 각 하위 정치집단들이나 무력집단들의 정치권력 투쟁의 하나의 전리품으로 전락될 위험성과 그 특정 하위집단의 전리품이 된 민족국가가 안보위기를 초래 할 위험성을 늘 안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할지도 모른다.

근대적인 민족과 민족주의의 원리에 기초해 구성된 민족국가는 그 구성원들 모두를 위해 봉사하는 공정한 심판과 관리자로서 기능해야 한다. 여기서 민족의 집단적 정체성은 민족자결에 대한 의식을 통해 하나의 집단적 동질-정체성이라는 추상적 결속단위를 만들어 낸다. 그리고 민족주의는 여기서 하나의 그러한 동질성과 운명공동체에 대한 믿음으로 작동하며 이러한 민족이라는 집합단위를 견고하게 하는 에너지를 부여한다. 한편, 민족국가는 그 민족이라는 추상적 단위 전체를 위해 존재하며 봉사하는 주권단위로서 등장한다. 이러한 논리아래에서 민족국가는 민족 단위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부여받게 되고 이러한 책임의 수행을 위해 폭력을 독점하고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권위를 보장받게 된다(Mayall, 1990: 35-41). 주권은 국가에게 국가의 관리자들이 공정한 심판관 또는 집행자로서 폭력을 사용할 수 있게 보장하며 민족주의라는 유사종교는 이러한 폭력행사에 정당함(Justice)과 옳음(Righteousness)을 부여하는 동시에 그러한 폭력의 집행자들이 전체 민족이라는 추상적 단위에 대한 충성심(흔히 애국심으로 나타나는)과 희생 등의 의식을 통해 사익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민족 단위 전체를 위해 임무를 수행하도록 그들의 의식과 행위를 규범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민족국가는 규범적으로 다른 비국가적인 폭력사용 집단에 대해 우위를 유지하며 이는 실제 물리력을 우월하게 행사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 전체에 대한 귀속감은 국가의 집행자들이 자신의 출신 지역, 부족, 혈족, 계급, 가족 등에 우선하여 집단적 관념으로서의 민족에 우선적으로 봉사하게 만들고 이는 법적인 폭력행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으로 나타나게 된다(Mayall, 1990: 35-41). 대체로 민족국가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지역들에서는 이러한 민족국가의 작동원리가 잘 작동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심지어 아프간 역사의 거의 대부분의 시기를 통틀어 이러한 유럽의 모델과 작동원리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않는 듯이 보인다. 민족주의라는 유사 종교는 이 지역에서 우세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한 듯하다(Juergensmeyer, 2008; Shahrani, 2008). 또한 근대

적 의미의 민족이라는 공동체 역시 여전히 이 지역에서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못한 듯이 보인다 (Shultz & Dew, 2006). 이러한 특수한 이 지역의 상황이 민족국가가 제대로 정착을 하지 못하고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 논문은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오늘날 아프간 지역의 안보위기가 이러한 민족국가의 취약성과 민족과 민족주의의 미 정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외견상 다소 우리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지역을 들여다보는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우리의 이해와 밀접히 관련이 있는 연구의의를 가지고 있다. 우선, 국제사회에서 경쟁하는 중견국가로서 우리나라는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대한 힘의 투사를 지속하여야 한다. 이는 우리의 국가이해와 밀접히 관련이 있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아프가니스탄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하여 향후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원유와 천연가스를 포함한 막대한 규모의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과 카라치 등의 항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 천연자원을 러시아와 중국을 우회하여 우리에게 공급할 수 있는 파키스탄과의 중간 경유지에 위치한다. 이 때문에 아프간은 전략적 의미가 크다. 더욱이 우리의 주요 위협세력으로 등장하는 중국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 아프간의 전략적 상황전개에 따라 중국 서쪽 국경의 안보 상황이 조건 지워짐으로 이는 중국이 동쪽에 힘을 집중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와 관련이 있어 우리의 안보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연유로 아프가니스탄의 안보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우리의 국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제 사회의 주요한 중견 국가의 하나로서, 국가건설 지원, 테러, 마약 등의 국제 사회의 여러 안보 이슈들에 적극 참여해야할 국가적 책임이 있는 바 이들 안보 불안 지역에 계속적으로 군대나 경찰병력의 파병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프가니스탄의 경험을 연구 분석하는 것은 앞으로의 또 다른 분쟁지역에 대한 군대나 경찰 병력 파병을 위한 노하우를 축적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아프가니스탄 사례를 통한 교훈은 이와 유사한 분쟁지역에서 지역 재건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긍정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국가건설의 어려움과 이와 관련된 테러와 마약 거래범죄 등과 같은 안보 위기 문제에 대한 연구는 북한이라는 취약국가의 붕괴 시에 주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을지 모른다. 북한의 붕괴 시 새로운 민족 국가 건설과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안보서비스의 제공은 주요한 이슈가 될지 모른다. 이러한 예상을 전제로 할 때 아프가니스탄의 사례연구는 미래의 북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의미 있는 사례 축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II. 개념적 논의: 위로부터 당기는 힘과 아래로부터 당기는 힘

아프가니스탄에서 민족과 민족주의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이 때문에 민족국가가 취약하고 불완

전하게 존립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 민족과 민족주의, 그리고 민족국가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게 해체한 두 개의 서로 다른 당기는 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두 개의 힘을 개념적으로 정리해 보면 하나는 민족과 민족국가단위의 위에서 당기는 힘인 민족국가 보다 더 넓은 코스모폴리턴적인 성격을 띠는 이슬람 종교의 영향력을 상징해 볼 수 있으며 다른 하나는 이 민족과 민족국가 단위의 아래에서 당기는 민족국가 하위단위의 부족 또는 씨족 공동체의 집단 결속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두 개의 서로 이질적인 다른 수준의 당기는 힘은 그 가운데에 끼인 민족과 민족국가 단위를 만들어내는 유사종교인 민족주의가 효과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해체하는 역할을 한다. 코스모폴리턴적인 이슬람 종교는 민족의 형성을 억제하고 해당 개인을 그보다 더 확장된 공간인 이슬람의 세계와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과 운명공동체 의식을 가지도록 강요 한다(Bar, 2009; Juergensmeyer, 2008). 한편 강한 부족적 전통은 해당 개인으로 하여금 부족 구성원으로서의 강한 결속력과 충성심을 강요하며 다른 부족을 이방인 또는 적대세력으로 이해하도록 만듦으로써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민족의 형성을 억제함으로써 민족국가의 건설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 한다(Shultz & Dew, 2006). 이러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 민족주의는 유사종교로서의 힘을 상실하며 민족의 형성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 또는 미국과 같은 외부 세력에 의한 인위적인 결정과 이에 결탁한 일부 지배엘리트의 동맹이 만들어낸 민족국가는 매우 취약한 상태로 존립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이 민족국가가 내전, 분리주의 무장 항쟁, 테러리즘, 반정부무장투쟁, 조직범죄 등의 안보의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글은 이러한 두 가지 서로 다른 당기는 힘을 중심으로 아프가니스탄에서 나타나는 민족과 민족주의의 미발달, 그리고 민족국가 건설의 장애와 이와 관련된 안보의 위기라는 상황을 설명할 것이다.

III. 이슬람 극단주의(탈레반)적 시각에서의 민족과 민족주의, 그리고 민족 국가

아프가니스탄의 지배적인 종교는 이슬람이다. 이 이슬람 종교는 아랍의 침략자들에 의해 이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었으며 이후 약 1000년 넘게 오늘날까지 아프가니스탄의 지배적인 종교로 이 지역의 삶과 인간 활동을 규정해 왔다. 이 가운데 수니 무슬림이 인구의 약 90% 정도를 차지하며 시아 무슬림 들은 약 10%정도를 차지한다. 이러한 인구 구성으로 인해 아프가니스탄은 수니 계열의 이슬람이 주도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하지만 시아파 계열의 무슬림들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민족국가의 공간에 포함되는 주요한 소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Afsar, Samples, & Wood, 2008: 61).

전통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은 보수적이고 전통적이긴 하였으나 극단적이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전통적인 아프간 부족사회에 이슬람 극단주의의 씨가 뿌려진 계기가 된 것은 소련의 침공으로

시작된 소련-아프간 전쟁이다. 대 소련 항쟁이 전개되면서 기존의 전통사회는 무자히딘 투쟁으로 동원화 되었고 소련 침략자에 대한 군사적 투쟁이 부족의 일상을 지배하는 주도적 패러다임으로 기능했다. 이와 함께 아프간 무자히딘 투쟁에 자원한 많은 외국계 무슬림들이 아프간 지역으로 유입되었고 이들을 따라 수니 이슬람 극단주의가 같이 따라 들어왔다(Kilcullen, 2009: 77-87).

이 시기 이집트, 예멘, 사우디,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보스니아, 체첸 등 세계 도처의 무슬림들이 지하드라는 명목 하에 대 소련 항쟁에 자원 참전하였으며 사우디 등으로부터 파키스탄을 거쳐 많은 자금과 무기, 그리고 물자가 아프가니스탄 무자히딘 항쟁에 지원되었다. 이러한 갑작스런 사태의 전개는 기존의 전통적인 부족사회의 이슬람 이해를 소련이라는 이교도에 대한 이슬람적 항전(지하드)이라는 보다 전투적인 이슬람으로 변모시켰다. 또한 외국계 무자히딘을 따라 들어온 이슬람 극단주의와 극단주의 성향의 이슬람 율법학자들이 파키스탄 난민캠프와 아프간 부족사회 전역에 걸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지역의 이슬람은 극단화하기 시작한다.

이 소련-아프간 전쟁기간 동안 해외로부터 자원 참여한 무자히딘 계열의 주류를 살펴보면 아프간 지역으로의 이슬람 극단주의 유입의 실체를 파악해 볼 수 있다. 당시 무자히딘 항쟁에 자원 참여한 주요 해외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을 살펴보면 하산 알 반나의 극단주의 사상에 근거하며 알 자와히리로 대표되는 Egyptian Islamic Jihad와 Muslim Brotherhood 계열과 17세기 아라비아 반도에서 활동한 이슬람 극단주의자인 압둘 와합에 뿌리를 둔 압둘라 아잠(Abdallah Azzam)과 오사마 빈 라덴으로 이어지는 사우디의 와하비 극단주의계열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세계 각처에서 모여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서로 통합되면서 이후에 알 카에다로 대표되는 이 국제 이슬람 극단주의 운동이 이 지역에서 탄생하게 되며, 이러한 이슬람 극단주의는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을 극단화시키며 이후에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 극단주의를 대표하는 탈레반을 탄생시키는 배경이 된다(Kepel, 2002; Nojumi, 2008; Rashid, 2000).

탈레반은 소련-아프간 전쟁과 이어지는 권력을 둘러싼 군벌들 간의 내란이라는 상황이 아프간 부족 사회를 붕괴시키면서 만들어낸 대규모 난민캠프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10년 이상 지속된 전쟁은 아프간 사회를 파괴시켰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난민들이 파키스탄 북부에 건설된 난민 캠프로 이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 사우디 정부로부터의 막대한 재정 지원과 전 세계 무슬림들로부터 기부 받은 막대한 재원을 활용하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이 난민 캠프 지역에 다수의 이슬람 종교학교(Madrassa)를 건설하면서 이슬람 극단주의 전파와 테러 및 군사 훈련 등을 제공하게 된다. 대 소련 전쟁과 이어지는 내란에서 부모를 잃은 다수의 아프간 전쟁 고아들은 이 파키스탄의 난민 캠프에서 성장하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운영하는 종교학교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종교교육과 테러 및 군사 훈련 등을 받으면서 성장하게 된다. 이후 이들은 탈레반을 결성하며 이 조직의 주축세력으로 성장하게 된다. 탈레반 지도자인 몰라 오마르의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이 종교학교들 가운데 가장 직접적으로 탈레반 탄생의 배경이 된 것은 디오반디 계열의 종교학교이다(Nojumi, 2008: 90-117).

이러한 탄생 배경과 성장 배경으로 인해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의 전통적 이슬람과는 단절되어 있

으며 전쟁과 해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지원이라는 특수한 조건이 만들어낸 이슬람 극단주의 운동이라는 성격을 띤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탈레반과 알 카에다 등의 국제 살라피 극단주의자들은 밀접한 유대감을 형성하게 된다(Nojumi, 2008: 90-117; Rashid, 2000).

이러한 배경 하에서 탈레반이 주도하는 이슬람 극단주의는 이후 탈레반 정권을 거치면서 아프가니스탄의 이슬람이 디오반디 학파와 와하비즘, 그리고 살라피 극단주의 유의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을 띠는 형태로 변모되도록 기여한다. 아프간 지역에서의 이슬람 극단주의는 이후 탈레반 정권 붕괴 이후에도 지속되어 오늘날 이 지역에서 주도적이고 영향력 있는 이슬람적 시각으로서 작용하게 된다(Nojumi, 2008: 90-117; Rashid, 2000).

이슬람 특히 이슬람 극단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민족과 민족주의 그리고 민족국가를 이교행위(paganism)를 간주하며 이를 종교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오늘날 이슬람 극단주의의 가장 주요한 이론가 중의 하나인 알 자와히리가 서술한 내용에 따르면 유럽의 이교도들이 만들어낸 민족과 민족주의 그리고 그러한 결과물인 민족국가는 이슬람의 가르침에 반하는 반 이슬람 적인 종교이며 이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의 이교인 불교와 힌두교, 그리고 조로아스터교 등과 같은 부류의 종교적 믿음에 해당한다고 취급한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개인주의, 민주주의,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의미하는 세속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등 모든 것들이 유럽의 이교도들이 만들어낸 거짓 가르침 또는 거짓 믿음으로 규정하며 이를 모두 종교적인 의미로 바라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슬람 극단주의는 민족의 형성, 민족주의의 지지, 그리고 이에 기반을 둔 공간적 영역의 한계를 가지는 민족국가 자체 이 모두를 이슬람의 가르침에 반하는 사탄의 가르침이라고 파악한다(Bar, 2009; Bin Laden, 1998; Ibrahim, 2007).

기본적으로 이슬람 극단주의의 세계관은 이 세계를 이슬람의 지역과 이교도의 지역으로 양분하여 이해한다. 이러한 세계관에서 이슬람의 지역은 알라(신 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알라의 영토로 그리고 이교도의 지역은 사탄적인 요소가 지배하는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이슬람에 의해 정복되어야 하는 남겨진 지역으로 바라본다. 한편 이들이 이해하는 이슬람의 땅에서는 알라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슬림들의 땅이기 때문에 어떠한 영토의 분할이나 경계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보며 그러한 영토의 경계는 곧 반 이슬람적인 것이라고 해석하며 심판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이슬람의 땅에서는 오직 하나의 정치권력만이 인정되며 이 정치권력은 이슬람 종교의 의해 인도되는 샤리아 신정(이슬람 신정)이라는 유일한 정치권력에 의해 모든 이슬람의 땅이 하나로 다스려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세계관은 민족주의에 기반을 둔 국가권력의 창출과 민족의 지지에 의한 민족국가의 분할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성격을 띤다(Bar, 2009; Bin Laden, 1998; Ibrahim, 2007). 이러한 독특한 이슬람적 세계관은 아프가니스탄 민족의 창출과 민족국가의 건설에 대한 심각한 장애요소로 작용하며 사우디나 이집트 등의 외국계 이슬람 극단주의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허용함으로써 이 지역 민족국가의 정치적 안정을 지속적으로 저해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한편 이슬람 극단주의는 인간에 대해서도 독특한 시각을 가진다. 기본적으로 이슬람 극단주의의 인

간관은 인류를 이슬람을 따르는 무슬림과 이슬람을 따르지 않는 이슬람의 적으로 나눈다. 그리고 이슬람의 공동체인 움마는 단지 가치 있는 인간인 무슬림들만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슬람의 적으로 간주되는 비무슬림들은 무슬림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같은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으며 단지 세 가지 선택 가운데 하나를 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중 하나는 무슬림으로 개종하여 움마의 진정한 일원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는 같은 형제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또 다른 선택은 이슬람을 유일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대신 이교도로서 자신이 믿는 종교를 유지하는 대가로 무슬림 지배자에게 지즈야(Jizya)라고 불리는 세금을 내고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교도들을 님미스(Dhimmis)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이슬람 통치하에 어떠한 정치적 권리도 누리지 못하며 단지 이등시민 또는 피지배자로서 무슬림 보다 비천한 위치로 본인의 생업을 유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교도들이 택할 수 있는 선택은 무슬림의 군대와 싸우다 죽음을 당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개종하거나 지즈야를 내지 않는 모든 이교도들은 이러한 죽음을 선택한 것으로 간주한다(Bar, 2009; Bin Laden, 1998; Ibrahim, 2007).

이슬람 극단주의는 비무슬림 또는 이교도들을 모두 카피르(Kafir)와 무나피크(Munafiq)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구분한다. 카피르는 믿지 않는 자 또는 알라의 사람들이 아닌 이교도들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한 번도 무슬림이었던 적이 없는 크리스천, 유대교도, 힌두교도, 불교도, 또는 무신론자, 사회주의자, 민족주의자, 공화주의자 등의 모든 비 무슬림 인구들이 모두 해당된다. 한편, 무나피크는 위선자 또는 거짓된 자, 배반자 등의 의미를 갖는 단어로 무슬림이면서 무슬림을 배반한 자, 또는 겉으로는 무슬림이면서 실제로는 세속적인 정치권력, 부, 또는 서구의 개인주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세속주의 혹은 물질문명에 탐닉하는 자들을 모두 총칭하는 단어이다. 이 무나피크의 대표적인 것이 겉으로는 무슬림을 표방하면서도 이교도인 서방국가들에 협조적이면서 이슬람의 율법을 엄격하게 따르지 않고 독재적이고 부패한 많은 이슬람 지역 정권들을 포함한다. 이집트 무바라크 정권이나 사우디, 요르단의 왕정, 그리고 현 파키스탄 정권 등이 이에 해당되며 아프간의 카르자이 정권도 이에 해당된다. 이 밖에도 미군과 그 동맹국 군대에서 일하거나, 아프간에 진출한 외국 기업을 위해 일하거나 또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을 따르지 않고 자유로운 복장이나 용모 또는 생활 습관을 유지하거나 여자로서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는 등의 행위가 모두 이 무나피크이라는 내부의 적에 해당된다(Patel, 2010; Sageman, 2004; Ibrahim, 2007).

한편 탈레반, 알카에다 유의 이슬람 극단주의 시각은 수니파 극단주의를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시아파 이슬람교도들에 대해서도 이들을 무슬림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이교도 또는 이슬람의 배신자들로 간주하면서 무슬림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한다. 이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은 오래된 역사적 배경을 가진다. 최초로 수니파와 시아파가 분리된 것은 예언자 무하마드의 죽음 이후 누가 그 뒤를 잇는 후계자가 될 것인가의 논의에서 시작한다. 이러한 논쟁의 발단이 된 것은 무하마드가 아들을 남기지 못하고 딸만을 남겨두고 죽었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수니파는 아들이 없으므로 무하마드의 피가 끊어졌고 따라서 그 후계자는 가장 무하마드의 뜻을 잘 받들고 지상에서

무슬림들을 가장 잘 이끌 수 있는 자를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시아파는 무하마드의 신성한 혈통이 딸의 아들인 외손자 후세인을 통해 계속됨으로 후세인이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대립에서 수니파는 후세인과 그를 따르는 시아파를 습격하여 후세인을 포함하여 그를 따르던 수백 명의 무리들을 살육하게 된다. 이를 계기로 수니와 시아간의 반목과 대립이 시작된다.

이후 복수를 꿈꾸던 시아파는 칭기즈 칸의 손자인 홀라구가 이끄는 몽고군이 이슬람 제국의 수도였던 바그다드를 포위하였을 때 수니파에 대한 복수를 하게 된다. 이들 시아파는 몽고군과 내통하여 몽고군을 위해 바그다드 성문을 몰래 열어줌으로써 수니파들이 몽고군에 의해 도륙되고 바그다드와 이슬람제국이 잿더미로 변하게 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된다. 이후 수니파는 시아파에 대한 깊은 적대감을 가지게 된다. 어찌됐건 이러한 역사적 원한으로 인해 수니파는 시아파 무슬림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간주하지 않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Weatherford, 2004).

이처럼 위에서 간단히 살펴본 바와 같이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는 독특하고 차별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인간관은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에서 진정한 하나의 통합된 민족이 형성되는데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기능한다. 민족은 민족구성원의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바탕으로 하며 민족 구성원인 개인 간에는 동등한 인간관계로 형성되어 이러한 동등한 개인들이 민족이라는 하나의 공동체로 응집될 경우에 민족의 형성이 가능해진다(Hobsbawm, 1992). 하지만 이슬람 극단주의는 자신들이 규정하고 있는 진정한 무슬림 이외에는 동등한 권리와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며 따라서 동등한 자격의 개인으로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Bar, 2009). 때문에 이러한 이슬람 극단주의가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에서는 근대적인 유럽적 의미의 민족이 형성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는 오늘날의 아프간에서 영향력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의 시각으로는 많은 수의 아프간 주민들이 이교도, 배반자 또는 위선자 등으로 이슬람의 적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 질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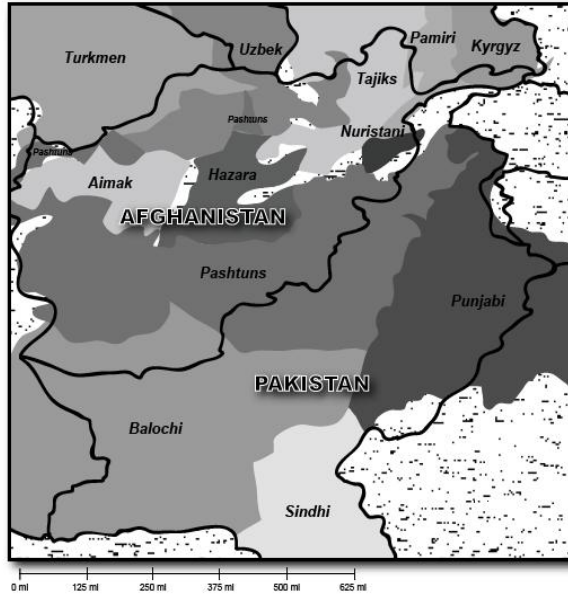
결국 오늘날 아프간인들의 민족과 민족주의, 그리고 민족국가에 대한 이해는 이러한 이슬람 극단주의의 민족국가 단위를 초월한 코스모폴리탄적 성격을 갖는 범 이슬람 세계(움마)에 대한 공동체 의식의 영향을 주요하게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는 민족과 민족국가 단위는 이를 초월하는 이슬람 공동체인 움마에 속하게 되어 그 단위의 균질성이 약해지게 되며 이슬람 공동체에 대한 귀속의식은 민족주의에 대한 열망을 희석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특히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경우 적과 동지의 구분선이 그들이 정의하는 이슬람과 반이슬람(이교도와 이슬람의 배반자를 포함하는)을 사이에 두고 확정함으로써 다양한 종교적 편향성과 열성, 그리고 전통을 아울러 모든 아프간인들을 하나의 민족 공동체로 통합하여야 하는 민족과 민족 국가건설에 주요한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IV. 부족 전통과 민족, 민족주의, 그리고 민족국가와의 불협화음: 아프가니스탄 파슈툰 부족의 사례

역사적으로 아프가니스탄 지역은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의 교차로라고 불릴 정도로 여러 서로 다른 부족 또는 종족들의 이주와 여러 정복자들의 침략과 정복을 경험하였다. 이 때문에 이 지역은 오늘날 여러 서로 다른 종족들과 부족들로 복잡하게 이루어진 마치 모자이크의 조합과 같은 인구와 언어집단과 문화적 구성을 띠게 되었다(Afsar, Samples, & Wood, 2008: 61-62). 이런 복잡하게 전개된 아프가니스탄의 역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중앙집권적 국가권력의 부재일 것이다. 대체로 아프간의 국가권력은 카불과 칸다하르와 같은 주요 중심 도시지역에 한정되었을 뿐 이 아프간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골 지역과 산악 지역 등은 거의 중앙의 지배 권력이 도달하지 못하는 상태로 사실상 지역에 거주하는 부족민들이 부족 또는 씨족단위로 중앙의 국가권력과 무관하게 자존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영위했다. 이러한 강한 부족적 전통은 아프간에 근대적 민족국가 형태가 들어선 이후에도 계속되었으며 이는 근대적 민족국가가 이 지역에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동했다(Kilcullen, 2009).

근대적 의미에서 오늘날의 아프간 민족국가단위가 들어서게 된 기원이 된 계기는 듀란트 라인의 확정이다. 19세기에 들어오면 북쪽에서는 러시아가 남쪽에서는 영국이 밀고 들어오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두 유럽 제국주의 세력이 충돌하는 이른바 “커다란 게임(The Great Game)”이 진행되게 된다. 이 와중에 아프가니스탄 토착 왕국이 러시아의 세력과 가까이 한다는 이유로 두 차례 영국과 아프가니스탄 간에 전쟁(1839년과 1878년)이 일어나고 영국군은 이 두 차례 전쟁에서 아프간 토착 전사들에게 패퇴하게 된다. 이후 영국은 사실상 아프간 정복을 포기하고 험준한 힌두쿠시 산맥을 성벽으로 삼아 자신들의 식민지인 인도를 방어하려는 소극적인 봉쇄정책을 취하게 된다. 한편, 러시아는 영국이 아프간을 정복함으로써 러시아의 배후지인 중앙아시아 각 지역들을 위협하는 시나리오를 회피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영국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현재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국경이 되는 듀란트 라인이 러시아와 영국의 협정에 의해 그어지게 되고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 지역은 완충지대로 남게 된다. 이러한 정치적이고 인위적인 결정을 통해 대체로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국가의 국경이 확정되었다(Afsar, Samples, & Wood, 2008: 59). 오늘날 민족국가로서의 아프가니스탄은 이러한 유럽제국주의 세력에 의한 인위적인 지정학적 범위의 설정의 결과물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민족국가가 외부의 인위적인 정의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국가를 구성하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민족이 만들어졌는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파슈툰과 타지크, 우즈베크와 하자라 등의 수십 개의 서로 다른 부족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민족 공동체로서의 아프간 정체성은 여전히 미발달 되어있으며 대체로 자신의 부족과 씨족의 정체성을 우선시하는 부족전통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다. 아프가니스탄은 사실상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여러 서로 다른 부족들로 모자이크처럼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사이의 연대감이나 공통된 정체성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Rais, 2008: 27-55). 다음의 <그림 1>은 이 지역의 복잡한 부족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1>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의 부족지역들

※ 자료: Afsar, Samples, & Wood(2008: 62).

아프가니스탄의 부족 또는 종족은 파슈툰(Pashtun), 타지크(Tajik), 하자라(Hazara), 우즈벡(Uzbek), 아이막(Aimak), 투르크멘(Turkmen), 발로치(Balochi) 그리고 키르기즈 그리고 몽골 족의 후손들을 포함한 많은 다른 기타 종족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아프간 인구의 가장 다수를 이루는 부족은 파슈툰으로 약 42%를 차지한다. 그 뒤를 이어서 타지가 두 번째로 큰 인구구성을 이루며 약 27%를 차지한다. 그 외 하자라가 9%, 우즈벡이 9%, 아이막이 4%, 투르크멘이 3%, 발로치가 2%, 그리고 그 외 여러 소수의 부족들이 모두 합해 4% 정도를 구성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부족들은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이웃한 나라들에도 퍼져 있는데 예를 들면 상당수의 파슈툰 족들이 파키스탄의 FATA(Federally Administered Tribal Area)지역에서 자존적인 부족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타지의 경우에는 타지키스탄에 우즈벡은 우즈베키스탄에 투르크멘의 경우는 투르크메니스탄에 아이막의 일부는 이란에 발로치의 상당수는 파키스탄에 각각 자신들의 민족국가를 가지고 있거나 해당지역에서 주요한 소수민족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다(Afsar, Samples, & Wood, 2008: 62).

한편 이러한 아프가니스탄의 각 부족들은 아프가니스탄 국가내의 다른 부족 또는 종족들과는 서로 공유하는 아프간인 또는 아프간 민족이라는 정체성이나 동질성을 크게 가지고 있지 않으며 언어나 문화 그리고 역사적 배경 등에서 상당 정도의 거리감과 이질성을 갖고 있다. 오히려 이들은 같은 아프간 국적의 다른 부족들 보다는 공식적인 국적은 다르지만 인근 국가에 속한 같은 부족의 구성원들에 대해 보다 긴밀한 연대감과 강한 소속감을 가진다. 예를 들면 파슈툰 부족의 경우는 같은 아프가니스탄의 민족국가를 형성하는 타지키나 우즈벡, 또는 하자라 등의 다른 부족들 보다는 파키스탄에 속해

있지만 같은 파슈툰 부족으로 언어적, 역사적, 문화적, 정서적 동질성을 갖고 있는 파키스탄 파슈툰 부족과 보다 강한 연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느낀다(Canfield, 2008; Rais, 2008: 27-55).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부족들 사이에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하지만 이는 연대감과 동질성에 대한 인지에 근거하기 보다는 전략적 고려에 의한 것이다. 예를 들면 대체로 이 지역에서 파슈툰 부족이 다수를 구성하며 정치적으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기 때문에 반 파슈툰 정서와 이해를 공유한 다른 비 파슈툰 부족들 간의 전략적 동맹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Canfield, 2008). 이는 근대 유럽의 현실 국제 정치에서 나타나는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다. 이른바 2001년 탈레반 제거 작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북부동맹(Northern Alliances)이 이러한 상황을 대변하는 것으로 이 북부동맹은 반 파슈툰 이해를 공유하는 타지, 우즈벡, 그리고 투르크멘 부족들이 서로 전략적으로 제휴한 결과이다. 하지만 이러한 동맹은 일시적인 성격을 가지며 이들 부족 사이에도 불신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이 늘 상존한다(Rais, 2008: 57-119).

한편, 대체로 각 부족단위 별로는 공통된 언어와 전통과 관습, 그리고 혈통적 동질성으로 인해 단일한 정체성과 소속감을 공유한다고 하지만 이들 부족들은 보다 더 세분화된 소 부족(sub-tribe)과 씨족(clan) 등으로 나뉜다. 그리고 같은 부족 내에서도 이러한 세부단위의 소 부족 또는 씨족들은 각각의 정체성을 가지며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그리고 종종 같은 부족내의 다른 소 부족이나 씨족들 사이에서도 갈등이나 이해관계의 충돌 그리고 반감 등이 나타나게 되며 하나의 동질집단으로서 강한 연대의식이나 공동체 의식은 희박하게 나타날 수 있다(Afsar, Samples, & Wood, 2008: 62). 예를 들면 다음의 그림 2는 같은 파슈툰의 부족단위가 어떻게 보다 하위단위의 서로 다른 소 부족과 씨족들로 나뉘지는 지를 보여준다.



NOTE: Adapted from Johnson and Mason, *Understanding the Taliban and Insurgency in Afghanistan*.

<그림 2> 주요 파슈툰 부족 계열 소부족 집단들의 위치

※ 자료: Afsar, Samples, & Wood(2008: 62).

위의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를 들면 파슈툰 부족의 경우 두라니(Durrani)와 길자이(Ghilzai), 그리고 카를란리(Karlanri), 사르바니(Sarbani), 구르구쉴(Ghurghusht) 등의 소부족 단위 그룹들로 나뉜다. 이 가운데 두라니와 길자이 단위 그룹이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두라니 부족은 1747년에 아마드 샤 두라니가 왕국을 설립한 이후로 전통적으로 파슈툰 부족들 사이에서 정치적 리더의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아프간 중앙 국가권력의 핵심 지배세력을 형성해 왔다. 현 아프간 대통령인 하미드 카르자이 역시 이 두라니 부족 출신이다. 한편 길자이 부족은 역사적으로 두라니 부족과 강력한 정치적 라이벌 관계를 형성해 왔다. 이 길자이 부족이 탈레반 세력의 주요한 부족적 지지기반이 되어 왔으며 탈레반 지도자인 몰라 무하마드 오마르를 비롯한 주요한 탈레반 지도자들이 이 길자이 부족 출신들이다(Afsar, Samples, & Wood, 2008: 62).

한편 위에 언급한 두라니, 길자이 등의 소 부족 단위 역시 통합된 하나의 정체성을 가진 단위 공동체는 아니다. 이 소 부족 단위는 단지 여러 작은 더 작은 소 부족 단위들과 씨족단위들의 느슨한 연합체(confederation)이다. 그리고 다시 이 보다 더 작은 소 부족 단위와 씨족들은 그보다 더 작은 친족 집단 단위로 이루어지며 이는 다시 가족/친척이라는 가장 하위의 집단 공동체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부족, 씨족, 친족 집단들의 계속되는 위계적 소속 집단 단위들의 서열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생활의 가장 기본 또는 핵심이 되는 단위는 주로 아주 작은 소 부족 단위이거나 씨족단위이다. 한편 이러한 일련의 계속되는 소속 집단들의 서열 속에서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일체감, 그리고 충성심은 서열적으로 존재한다. 나, 가족, 가까운 친척, 친족, 씨족, 보다 소규모의 부족, 소 부족, 그리고 파슈툰이라는 부족전체로 이어지는 점증적인 방식으로 소속감과 적대감이 결정된다. 이는 적대 행위자가 누구인가 하는 적대자의 정체성에 따라 결정된다. 이러한 실존적 적과 동지의 구별에 따라 나와 나의 가족에 가까운 순서로 더 강한 소속감과 정체감 그리고 충성심을 가지게 된다(Kilcullen, 2009).

한편 아프가니스탄의 이러한 종족적 또는 부족적 전통은 아프가니스탄의 험준하고 거주하기 힘든 지리적 특성에 의해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있다. 대체로 아프가니스탄의 지형은 해발 3000미터 이상에 달하는 높고 험준한 산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험준한 산악지형 때문에 노새와 사람이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좁은 산길(trail path)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도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냈고, 이는 아프간 지역의 부족 단위 전통을 강화시키고 중앙 국가권력이 이러한 지역에 영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제 요인으로 작용했다. 대체로 국가권력의 효과적인 행사를 통한 중앙집권체제의 확립은 효과적인 교통, 통신망의 구축을 토대로 군대와 경찰력 등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의 지리적 특수성은 중앙권력에게는 엄청난 난관을 안겨주고 산악 지방의 지키려는 부족 전사들에게는 저항하기 쉬운 환경을 제공해왔다. 이는 세 차례의 영국과 아프가니스탄 간 전쟁에서 영국군이 모두 패퇴한 사례나 소련-아프간 전쟁에서 탱크와 공격헬기 등 기계화된 소련군이 라이플과 RPG(Rocket Propelled Grenade-Launchers) 등으로 무장한 무자히딘에게 패퇴한 사례에서 잘 증명되었다. 어쨌거나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지방의 강한 부족적 전통과 어우러져 국가권력과 무관하게 자생적으로 존재하는 부족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는 분권적인 정치 환경을 만들

어 났다(Kilcullen, 2009).

궁극적으로 이러한 부족 전통의 강한 영향력은 근대성에 기반을 둔 아프간이라는 민족을 형성하지 못하도록 작용함과 동시에 여전히 전근대성과 전통과 관습들이 근대성보다 우월한 지위에 남도록 함으로서 민족과 민족주의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토양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하였다. 이 때문에 근대성은 카불과 같은 대도시에서 한 줌의 모래와 같이 적은 수의 일부 근대교육을 받은 지식인층 또는 서구화된 지배엘리트 또는 중산층을 중심으로 간신히 존재할 뿐이며 아프간의 압도적인 대다수 주민을 구성하는 시골지역에 거주하는 부족민들에게는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이들 시골의 부족지역에서는 여전히 이슬람적인 관습과 율법, 부족지도자의 권위와 부족과 씨족에 대한 집단적 소속감과 유대감, 그리고 전통적 인습과 권위 등이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Rzehak, 2008).

근대 민족국가는 합의되고 일체화된 민족의 존재와 자신의 영토 내에서의 폭력행사의 독점과 그 사용의 합법성과 주권성의 수용을 전제로 할 때 존재한다. 하지만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은 이러한 의미에서 아프간 민족이라는 실체가 확고하게 형성되지 않았으며 추상적 공동체로서의 민족도 희미하게 존재할 뿐이며, 이로 인해 민족국가의 합법적 폭력 사용권과 주권이 공고하게 인정받지도 못하며, 따라서 국가권력이 폭력을 독점하고 있지도 못하다. 아프간의 여러 씨족들과 부족들은 흡스적인 의미에서 자신의 폭력 사용권을 국가에 양도하지도 않았다. 또한 이 부족들은 대체로 범죄에 대한 통제나 형사사법과 같은 치안의 문제도 국가에 의존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부족전통과 부족회의나 관습에 따라 스스로 해결하는 경향을 띤다(Kilcullen, 2009). 따라서 경찰과 군대와 같은 국가권력이 기능을 함으로서 보호자이자 중재자로서 권력행사의 정당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지 않았다. 이러한 불안정한 기반 하에서 인위적으로 급조된 아프간 민족국가는 그 태생적 한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실효적인 지배력을 갖추고 작동하는 흡스적인 레비아탄으로 존립하기가 어렵게 된다. 오히려 아프간 지역사회에서 급조된 아프간 민족국가의 군대나 경찰은 그 지역의 부족민들의 사적 무장집단이 단지 유니폼을 갈아입은 것에 불과한 모습을 띤다. 해당 지역의 군부대나 경찰병력은 지휘관부터 모든 병력에 이르기까지 해당 지역의 부족민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렇게 만들어진 군이나 경찰 병력은 국가의 공권력을 집행하기 보다는 해당 부족의 사병집단으로 그 부족의 리더와 부족민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 이 지역에 주둔한 군과 경찰 세력은 종종 매우 부패하거나 아니면 탈레반에 협력하는 등의 반 민족국가적인 성격을 띠게 된다(Plasse, 2012).

더욱이 이러한 아프간 민족국가의 근원적 취약성과 더불어 외부세력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아프간의 지정학적 경계는 파슈툰 부족을 포함한 대부분의 부족들의 부족적 영역범위를 각각 다른 민족국가단위로 분할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언제나 아프간의 국내문제가 이웃 국가들과 연계된 국제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민족국가의 정체성과 존립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예를 들면 파슈툰 족의 경우는 각각 아프가니

스탄과 파키스탄이라는 서로 다른 민족국가의 구성원으로 나뉘어져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이라는 두 민족국가에 공통적으로 지속적인 정정불안의 요소로 남게 되었다 (Afsar, Samples, & Wood, 2008: 61-62).

결국 이러한 복잡한 사정들로 인해 현재 아프가니스탄 국가권력과 각 부족들이 장악하고 있는 지방 권력 또는 세력들 사이에는 지속적인 긴장과 갈등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 부족적, 종족적 요소가 민족국가 단위 아래에서부터 이 민족과 민족국가의 형성을 해체하거나 저지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취약한 아프간 민족국가가 하나의 실패한 프로젝트로 전락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V. 안보의 위기로서의 테러리즘과 마약거래, 그리고 아프간 민족국가 건설의 장애

안보 위기의 한 유형으로서 테러리즘과 마약거래가 간주될 수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안보의 문제를 이해하는 전통적인 국가안보에서는 안보의 위기로 간주될 수 없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최근 들어 국제 안보론 분야에서도 인간 안보의 문제가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면서 국가 단위가 아니라 실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협이 안보의 문제로 다루어질 수 있음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인간 안보에 있어 최근 들어 주요한 안보의 위협으로 주목받는 것이 테러와 마약 거래와 같은 이슈들이다. 이에 부응하여 유엔 마약 범죄 국에서는 21세기 들어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테러리즘과 마약거래와 같은 초국가범죄의 문제를 심각한 인류에 대한 안보의 위협으로 다루고 있다(UNODC, 2012).

테러리즘과 마약거래는 서로 전략적 제휴를 통한 상승작용을 통해 안보의 위기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Cassara & Jorisch, 2009: 4). 대체로 테러리즘은 그 활동의 지속을 위한 자금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는 마약거래의 직접적인 참여나 마약거래를 보호함으로써 받게 되는 보호세 징수라는 간접적인 참여를 통해 테러를 위한 재원을 충당한다. 한편 마약거래의 경우는 중앙정부가 테러에 의해 공격을 받아 그 법집행의 능력이 쇠약해질수록 더욱 안정적인 마약 거래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는 이해관계를 가진다. 이 때문에 테러리즘의 번성은 마약 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테러세력에 의해 마약거래가 보호를 받게 되면 더욱 그러한 공생관계가 구축되게 된다. 이런 점에서 테러와 마약거래는 공통의 이해를 가지면서 중앙정부나 국가권력에 대한 적대세력을 형성하게 된다. 이 테러와 마약거래는 공통적으로 국가권력의 법 집행 기능을 약화시키고 사적인 폭력 사용을 통해 치안 불안을 극대화하면서 안보의 위기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테러와 마약거래 세력이 지배하는 해당 지역에서 폭력적인 방식으로 해당 주민들을 착취, 억압, 통제함으로써 그 해당 주민들에 대해 인간 안보의 위기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테러리즘과 마약거래는 중대한 안보 위기의 한 유형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의 테러리즘과 마약 거래의 현황과 그 심각성의 수준을 살펴볼 때 아프가니스탄이 안보의 위기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은 뚜렷해 보인다(Tarzi, 2008). 탈레반 등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과 심각한 수준에 도달한 마약거래는 아프간 민족국가의 건설에 심각한 정도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으며 해당 국가의 정당한 법집행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또한 이들이 행사하는 폭탄테러, 인질납치, 사적인 고문, 납치, 처형 등의 사적인 폭력 행사는 이 지역의 인간 안보의 상황을 매우 악화시키고 있다(Cassara & Jorisch, 2009; Tarzi, 2008). 그리고 이러한 안보 위기의 상황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지역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은 이미 10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미국과 동맹국들이 막대한 병력과 물자, 인력과 재정을 쏟아 붓고 있음에도 사태는 여전히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테러 공격을 주도하는 탈레반 등의 테러세력은 아프간 국가를 심각하게 불안정하게 만들며 반대로 테러세력의 자원자들과 지지자들의 수를 빠르게 증가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세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더욱이 아프간의 테러는 최근 들어 파키스탄 지역으로 확대되어 파키스탄의 국가권력마저 위기상황으로 내몰고 있다(Tellis, 2008).

한편 아프가니스탄 민족국가의 또 다른 안보위기인 마약거래 역시 심각한 수준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UNODC(United Nations Office on Drug Control) 발표에 따르면 아프간에서 생산되는 아편 류 마약의 국제 거래 가치가 약 400억 달러에 달하며 아프간 지역에서 이웃나라로 밀수출되는 마약의 가치는 약 30억 달러에 달한다. 한편 아편을 경작하는 아프간 농부들이 약 6억 달러의 수입을 벌어들이며 아프간의 마약거래 조직과 마약거래에 관련된 테러세력들이 20억 이상의 수입을 마약밀거래로 벌어들인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은 전 세계 아편과 헤로인 종류 마약의 약 90%를 생산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아프간의 약 80-90%의 경제활동이 비공식 영역에서 이루어지며 이중 상당한 비중을 마약 밀거래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Cassara & Jorisch, 2009: 2).

더욱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역시 테러리즘과 마약거래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통합적으로 안보위기를 더욱 확대 심화시키는 상승작용을 일으킨다. 탈레반 세력의 상당 정도의 테러자금의 마약거래로부터 공급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한편 계속되는 테러리즘으로 인한 안보의 위기와 국가권력의 약화와 사회, 경제적 불안은 마약거래를 국가의 공권력의 견제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으로써 이 마약거래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실제로 탈레반 등의 이슬람 테러세력과 마약거래를 주도하는 범죄조직, 그리고 아편 경작에 생계를 의존하는 아프간 농민들 간의 전략적 제휴가 구축됨으로써 이는 궁극적으로 아프간 안보위기를 악화시키는 총체적인 힘으로 작용하는 경향을 보인다(Sarwari & Crews, 2008; Tarzi, 2008).

테러리즘과 마약거래로 나타나는 이러한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의 안보위기는 취약한 아프간 민족국가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우선, 취약한 민족국가는 아프가니스탄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법집행 기능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안전 보장의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아프간 민족과 민족주의라는 내재적 동력에 기초하지 않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원과 후견이라는 외재적 힘에 의존해서 만들어진 현 카르자이 정권의 민족국가는 아프간의 대부분 지역에서 정통성 있는 권력의

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못하다. 종종 군대와 경찰병력으로 대변되는 아프간 국가권력의 부족 지역에 대한 힘의 투사는 공권력의 집행이라기보다는 외부 세력의 침입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정통성이 결여된 상황에서는 국가권력의 집행이 단지 해당 지역의 여러 비국가 무장 세력들에 대한 물리적 폭력의 비교우위에 의해서만 실효적 권력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통성이 결여된 상황에서의 실효적 폭력 능력의 축적은 상당한 자원과 시간과 노력의 투입을 필요로 하는 힘든 과제이다. 대체로 민족과 민족주의라는 토대 없이 시도되는 아프간 군대와 경찰의 건설은 종종 이렇게 만들어진 군대와 경찰이 국가 기관의 외양을 덮어선 또 다른 사적 폭력집단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대체로 이렇게 만들어진 군대와 경찰은 해당 부대 지휘관의 사병으로 기능하거나 아니면 해당 부대를 구성하는 대부분 병력의 출신 부족의 이해를 위해 기능하는 군벌로 전락하는 경향이 있다(아프간의 군이나 경찰 부대는 아프간의 부족적 특성 때문에 특정 부대원의 거의 모두가 특정 부족 출신들로 구성된다). 이 때문에 아프간 대부분 지역의 주민들에게 아프간 정부군과 경찰은 민족국가의 공정하고 합법적인 권력집행기관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부족 지역에 침범한 또 다른 외부세력으로 간주된다. 이는 실효적으로 아프간 국가권력이 아프간 지역의 주민들에게 법집행과 안전보장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게 만들며 대다수의 이러한 아프간 지역들이 치안 부재 또는 안전 보장의 공백상태에서 방치되는 상황을 만들어 낸다(Giustozzi & Reuter, 2011; Plasse, 2012).

테러리즘과 마약거래는 이러한 대다수 아프간 지역에서의 치안 부재 또는 안전 보장의 공백 상황을 악용함으로써 번성하는 경향이 있다. 탈레반 등의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세력은 안전 보장을 전혀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아프간 지역들에서 유일하거나 또는 상대적으로 가장 우세한 폭력 행위자로서 부족 지역들을 장악해나가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이들은 국가 권력이 부재한 이들 부족 지역들에서 국가를 대신하여 안전 보장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법집행 권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자신들의 지배 정통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부족 지역에서의 이러한 테러세력의 물리적 통제력 강화와 더불어 이슬람 극단주의를 강요하고 이를 확대 강화함으로써 자신들의 지배 정통성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한편 마약 거래 세력 역시 아프간 시골의 부족 지역에서의 안전 보장의 공백상태를 악용한다. 그들은 국가권력의 통제로부터 자유롭게 마약 거래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거둬들인 막대한 규모의 이윤을 통해 스스로의 무장력을 강화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경제적 힘을 축적하며, 자신들이 활동하는 지역에 대한 물리적 통제력을 강화해 나간다(Cassara & Jorisch, 2009: 2-7; Giustozzi & Reuter, 2011; Roggio, 2009).

한편 대다수 아프간 시골지역에서 국가 권력의 공백 상태를 악용해 번성한 테러리즘과 마약거래는 다시 아프간 민족 국가 건설에 대한 중대한 걸림돌로 작용한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더욱 취약해진 국가권력이 초래한 아프간 대다수 지역에서의 약화된 국가권력의 공백상태는 다시 테러리즘과 마약거래라는 안보의 위기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아프간 대다수 지역에서의 테러리즘의 세력 강화는 우선 이슬람 극단주의의 세력 확장을 가져오며 이는 여러 종교적 정체성과 편향성을 통합한 합리적이고 근대적인 민족국가 건설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또한 테러세력의 지속적인 테러 공격과 무장

항쟁은 만성적인 안보 위기와 안보 부담을 국가권력에게 초래하여 국가 권력의 효율적인 물리력 행사를 저지하며 이는 국가권력의 정통성과 물리적 능력을 고갈시키게 만든다. 이와 더불어 아프간 시골 지역에서의 테러세력의 통제력 확장은 이들 지역에 대한 국가권력의 힘의 투자를 저지시키고 국가권력의 통제력이 수도를 포함한 일부 대도시 지역에 국한되게 만들었으므로 국가권력의 힘의 기반을 제거하고 이는 국가권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한편 마약 거래 역시 이 마약 거래 세력이 장악하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의 국가 권력의 힘의 투자를 저지하며 마약 거래 문제 해결에 대한 치안 부담을 국가권력에게 지움으로서 국가권력의 힘의 약화를 야기한다. 또한 마약 거래에 기반을 둔 경제라는 국가권력이 통제하지 못하는 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민족 국가 건설에 기반이 되는 자원을 약탈하고 마약 남용을 통한 사회적 해체를 야기함으로써 민족 국가 건설의 사회적 기반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Cassara & Jorisch, 2009: 2-7; Fange, 2010; Plasse, 2012; Rais, 2008).

V. 결론: 이슬람 극단주의와 강한 부족 전통의 상호작용이 아프간 민족국가 건설의 혼란과 안보의 위기로서의 테러리즘과 마약거래에 미친 영향

앞서 5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리즘과 마약거래와 같은 안보위기는 취약한 아프간 민족국가에 기인한 바 크다. 그리고 이러한 안보의 위기와 아프간 민족국가 건설의 혼란 또는 장애는 다시 이러한 테러리즘과 마약거래로부터 영향을 받아 더욱 악화되며 이는 양자 간의 부정적인 강화작용을 미치는 현상을 보여준다. 한편 이러한 민족국가 건설의 혼란 또는 취약한 민족국가라는 결과는 궁극적으로 앞서 3, 4장에서 언급한 이슬람 극단주의라는 요소와 강한 부족적 전통이라는 요소가 근대 유럽적 민족과 민족주의의 발전을 저해하고 결국 아프간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민족이라는 공동체와 이러한 민족 단위의 토대에서 작동하는 주권과 정당한 폭력 독점권을 행사하는 민족국가의 건설에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하여 이러한 건설과정에 혼란 또는 장애요소로 기능한 것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아프간 민족 공동체와 민족주의라는 내재적 동력에 기초하지 않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원과 후견이라는 외재적 힘에 의존해서 만들어진 현 카르자이 정권의 민족국가가 이러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아프간 민족국가로 정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종종 목격되는 바와 같이 민족 공동체의 토대 없이 인위적으로 시도된 아프간 군대와 경찰의 건설이나 다른 법집행 기관 또는 국가 관료기관의 건설로 나타나는 민족국가의 건설은 종종 이슬람 극단주의라는 믿음과 강한 부족 전통에 의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아 부패하거나 아니면 반국가적인 성격을 띠는 사적인 이해를 위해 봉사하는 무장집단이나 관료기구로 변질된다. 그리고 이렇게 변질된 국가기구는 지역 사회에서 안보의 공백을 만들어 내고 오히려 테러리즘과 마약거래와 같은 안보의 위기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Plasse, 2012).

대체로 민족국가는 그 주권 영역 내에서의 폭력의 독점과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법 집행 능력의 확

보를 통한 개인의 보호와 사인간의 분쟁 조절을 함으로서 그 권위와 정통성을 갖추게 된다 (Mayall, 1990: 35-45). 또한 민족국가는 그 구성원들을 민족주의라는 유사종교로 포섭하고 민족이라는 공통된 집단에 대한 신화를 구축함으로써 그 구성원들을 통합한다(Anderson, 1991). 그리고 이러한 통합된 민족의 틀 속에서 각각의 구성원들을 함께 묶는 법집행 체제, 안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해당 개인들을 국가에 의존하게 만들고 국가를 지지하도록 한다(Mayall, 1990: 35-45).

하지만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라는 위로부터 당기는 힘과 강력하게 남아있는 부족 전통이라는 아래로부터 당기는 힘이 함께 작용함으로써 민족과 민족주의가 형성되는 것을 막고 민족국가의 힘과 작용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약화된 카르자이의 민족국가는 폭력을 독점하지도 못하고 법 집행능력도 효과적으로 갖추지 못함으로써 권위와 정통성, 그리고 물리적 폭력 능력의 결여라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때문에 아프간 주민들을 민족단위의 치안 질서 유지 체제 또는 안보 서비스 제공 체제로 통합해 내지 못함으로써 대다수 아프간 지역 주민들이 안보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내팽개쳐지거나 아니면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내몰고 있다. 이는 아프간 주민들의 상당수가 테러조직과 마약 거래 세력의 폭력아래에서 인간안보의 위기를 감내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테러조직이나 지역의 사적 무장 세력에게 보호를 받도록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국가권력이 희미하게 존재하는 대부분의 아프간 시골지역에서 테러세력과 마약 거래 집단 등의 사적 무장 세력이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대다수의 아프간 주민들을 임의적으로 가혹하게 다루도록 한다(Kilcullen, 2009; Sarwari & Crews, 2008; Tarzi, 2008).

이처럼 오늘날 보여 지는 아프가니스탄의 위기는 근대적인 민족과 민족주의의 형성이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부의 힘에 의해 급조된 민족국가가 얼마나 취약하며 이는 곧 국가의 실패와 안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또한 민족과 민족주의 그리고 민족국가의 엄밀한 성찰과 이해 없이 아프간과 같은 지역에 도식적으로 적용된 근대 유럽식 민족국가 체제가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지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들이 국제사회에서 아직도 잘 이해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국제사회의 주류는 여전히 국제질서를 민족국가들의 질서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 민족국가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민족국가내의 법적인 권리를 가진 구성원들은 획일적으로 민족으로 간주되며 민족주의는 당연히 그 민족과 함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사례 깊이 못한 전제에 기초해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지역의 안보의 위기는 민주주의와 구성원들에 의한 보통선거와 경제적 지원을 통해 민족국가라는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으며 이 제도의 구축은 곧 안보의 정착과 정상적인 국가제도의 작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들에 의해 접근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간추리면, 이 논문은 오늘날 보여 지는 아프가니스탄의 국가건설의 장애와 이와 관련된 테러리즘과 마약거래 등의 안보 위기와 관련된 도전들이 이 지역의 민족국가의 취약성과 민족과 근대적 민족주의의 미 정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라는 민족국가 단위의 위로부터 당기는 힘과 강력하게 남아있는 부족 전통이라는 아래로부터 당기

는 힘이 함께 작용함으로써 민족과 민족주의가 형성되는 것을 막고 민족국가의 건설을 방해함으로써 이 민족국가의 힘과 작용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이렇게 약화된 카르자이의 민족국가는 폭력을 독점 하지도 못하고 법 집행능력도 효과적으로 갖추지 못함으로써 권위와 정통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중앙의 민족국가의 장애는 부족 전통이 강한 지역 수준에서 테러리즘과 마약 거래가 번성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곧 탈레반 등의 테러집단과 마약 거래 집단 등의 비국가 폭력 행위자들의 세력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서 아프간 도처의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상시적으로 위협받는 안보의 위기를 초래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 수준에서의 안보의 위기는 다시 중앙의 민족국가 건설의 강력한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이처럼 오늘날 보여 지는 아프가니스탄의 위기는 근대적인 민족과 민족주의의 형성이 전제되지 않는 조건에서 외부의 힘에 의해 급조된 근대적 민족국가가 얼마나 취약하며 이는 곧 국가의 장애와 이와 관련된 안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오늘날 아프가니스탄에서 보여 지는 민족국가 건설의 어려움과 테러리즘과 마약거래 같은 안보의 위협은 평면적인 이해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보다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민족과 민족주의 그리고 민족국가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참고문헌

- Afsar, Shahid, Chris Samples, & Thomas Wood, 2008. *The Taliban: An Organizational Analysis. Military Review.* <http://handle.dtic.mil/100.2/ADA485136>.
- Bar, Shumel. 2009. Religious Sources of Islamist Terrorism—jurisprudence, Leadership and Strategy. *Presentation during the FDD(FOUNDATION for the Defense of Democracies) counterterrorism seminar in Israel (May 31–June 9, 2009).*
- Bin Laden, Osama. 1998. *Jihad against Jews and Crusaders.* World Islamic Front Statement.
- Canfield, Robert L. 2008. Fraternity, Power, and Time in Central Asia. In Robert D. Crews and Amin Tarzi(eds.). *The Taliban and the crisis of Afghanista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assara, John. & Avi Jorisch, 2009. *The Afghan Transit Trade: How AF/PAK Drug Lords and Terrorists are Moving Money and Transferring Value.* Foundation for Defense of Democracies. Redcell Intelligence Group.
- Fange, A. 2010. The State of the Afghan State. *Afghanistan Analysts Network Discussion Paper.* https://www.afghanistan-analysts.net/uploads/20100108AFaenge_paper_website-version.pdf
- Giustozzi, A. & C. Reuter. 2011. The Insurgents of the Afghan North. *Afghanistan Analysts Network Thematic Report.* <http://www.aan-afghanistan.org/index.asp?id=1679>

- Herder, Johann. G. 2002. 인류의 역사철학에 대한 이념. 강성호 역. 서울: 책세상.
- Hobsbawm, Eric. J. 1992. *Nations and Nationalism since 1780: Programme, Myth, Reali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brahim, Raymond. 2007. *The Al Qaeda Reader*. New York: Broadway Books.
- Juergensmeyer, Mark. 2008. Religious Radicalism and Political Violence. In R. K. Betts (ed.). *Conflict after the Cold War*. New York: Pearson Longman.
- Kepel, Gilles. 2002. *Jihad: The Trail of Political Islam*.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Kilcullen, David. 2009. *The Accidental Guerrilla: Fighting Small Wars in the Midst of a Big On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ayall, James. 1990. *Nationalism and International Societ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ojumi, Neamatollah. 2008. The Rise and Fall of the Taliban. In Robert D. Crews and Amin Tarzi (eds.). *The Taliban and the Crisis of Afghanista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8.
- Patel, Sadiyya. 2010. *What is a Kafir and a Munafiq?* BellaOnline.
<http://www.bellaonline.com/articles/art61510.asp>.
- Plasse, John. 2012. Personal Interview. 제1저자인 윤민우 교수는 John Plasse를 직접 만나 아프가니스탄의 파슈툰 부족 지역의 상황과 이 지역에서의 아프간 정부군 및 경찰의 교육훈련과 제도 구축 문제, 그리고 관련된 테러리즘과 치안 상황 등의 문제에 관해 인터뷰 하였다. John Plasse는 미국 인디애나 주 테라호트 시의 시 경찰국장으로 근무하였으며 동시에 인디애나 주 육군 주방위군 38보병사단의 중사로 28년간 복무하였다. 그는 미 헌병대 소속으로 아프가니스탄의 Kapisa, Parwan, Bamyan, 그리고 Panjshir 지역에서 아프가니스탄 경찰의 훈련을 총괄 지휘했다.
- Rais, Rasul. Bakhsh. 2008. *Recovering the Frontier State: War, Ethnicity, and State in Afghanistan*. Lanham, MD: Lexington Books.
- Rashid Ahmed. 2000. *Taliban*.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Renan, Ernest. 2002. 민족이란 무엇인가. 신형선 옮김. 서울: 책세상.
- Roggio, B. 2009. Taliban Contest or Control Large Areas in Afghanistan. *The Long War Journal*.
http://longwarjournal.org/archives/2009/12/taliban_contest_or_c.php
- Rzehak, Lutz. 2008. Remembering the Taliban. In R. D. Crews and A. Tarzi(eds.). *The Taliban and the Crisis of Afghanista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ageman, Marc. 2004. *Understanding Terror Networks*. Philadelphia, P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Sarwari, Atiq & Robert D. Crews, 2008. Epilogue: Afghanistan and Pax Americana. In Robert D. Crews and Amin Tarzi(eds.). *The Taliban and the Crisis of Afghanista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hahrani, M. Nazif. 2008. Taliban and Talibanism in Historical Perspective. In Robert D. Crews and Amin Tarzi(eds.). *The Taliban and the Crisis of Afghanista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Shultz, Richard H. & Andrea J. Dew, 2006. *Insurgents, Terrorists, and Militant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Tarzi, Amin. 2008. The Neo-Taliban. In Robert D. Crews and Amin Tarzi(eds.). *The Taliban and the Crisis of Afghanista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Tellis, Ashley. J. 2008. *Pakistan and the War on Terror: Conflicted Goals, Compromised Performance*. Washington D. C.: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UNODC(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2012. UNODC TPB(Terrorism Prevention Branch)의 2차 EGM(Expert Group Meeting)에서 테러와 초국가범죄는 심각한 안보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보의 위협으로 다루어졌다. 이 회의는 2012년 2월 2-3일 양일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UNODC본부에서 이루어졌으며 제1저자인 윤민우는 이 회의에 초청 전문가의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 Weatherford, J. 2004. *Genghis Khan and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New York: Three Rivers Press.

尹琓宇: 미국 샘 휴스턴 주립대학교 형사사법 대학원에서 범죄학 박사학위(논문: 인질테러 사건에 대한 예측연구, 2006)를 받았다. 이후 미국 Wheeling Jesuit 대학교에서 조교수로 근무하였으며, 현재는 한세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국제테러리즘, 초국가범죄, 국제조직범죄 등이다(minwooy@hotmail.com).

金鐘和: 현재 경기 대학교 범죄심리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고 있으며, 박사논문을 작성 중에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테러리즘, 범죄심리학 등이다.

투 고 일: 2011년 12월 01일

수 정 일: 2012년 01월 15일

게재확정일: 2012년 01월 31일

The Integrated Effect of Islamic Extremism and Strong Tribal Tradition in Afghanistan on the Disruption of the Afghan Nation–State Building and Terrorism and Drug Trafficking as Crisis of Security

Min Woo Yun, Jong Hwa Kim

This article explains about the disruption of nation–state building and symptoms of security crisis such as terrorism and drug trafficking in Afghanistan since 2011. This essay shows that terrorism and drug trafficking as types of security crisis in this country is closely related to the disruption of potent nation–state building, and the weak presence of nation and nationalism. Pulling–up force from above the nation–state level called Islamic extremism and pulling–down force from below called strong persistence of tribal tradition, by interacting together, prevent nation and nationalism from forming and incapacitat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nation–state in today's Afghanistan. Due to these hurdles, the Karzai's weakly built nation–state lacks legitimacy and law–enforcement capacity and thus cannot monopolize violence and protect local population in most of Afghan regions. Security crisis such as rampant terrorism and drug trafficking in this country is heavily influenced from this impotence of the central nation–state and further disrupts the construction of the stable nation–state. So, disruption of nation–state building and security crisis form full circle and feed with each other. The weakness of nation and nationalism resulting from strong anti–nation and anti–nationalism force such as Islamic extremism and strong tribal tradition is an effect behind misfortune of the full circle. The security crisis of Afghanistan observed today can be a case well showing that how the nation–state, which is hastily built by a foreign hand and thus not based on the sound formation of nation and nationalism, is vulnerable and that the vulnerable state can eventually lead to the disruption of the state and the crisis of security. By closely examining the case of Afghanistan, this essay suggests that the crisis of nation–state and security seen in the today's Afghanistan requires more complex and multidimensional understanding of nation, nationalism, and nation–state.

Key words: afghanistan, security, islamic extremism, tribes, nation–state, terrorism, drug trafficking